

여름철 물놀이 사고, 고령층·어린이 주의 필요!

- 익수사고로 응급실 내원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사망(28.7%)하고,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사망률 51.7%로 절반 이상이 사망
- 최근 5년(2020~2024) 익수사고 현황 분석 결과 여름철, 야외, 오후 시간 집중 발생
- 매년 7월 25일 「세계 익사 예방의 날」을 맞아 ‘익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일어나선 안 된다(Anyone can drown, No one should)’ 캠페인 진행중으로 익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다가오는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익수(물에 빠짐)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 여름은 무더위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놀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익수사고 발생 위험요인과 취약대상 등을 분석하고, 안전수칙과 응급처치 방법,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배포하였다.

1. 익수사고 발생 현황

2020년부터 2024까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총 52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자가 385명(73.6%)으로 여자 138명(26.4%)보다 약 2.8배 정도 많았다.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06년 5개 병원 참여로 시작하여, '25년 현재 23개 병원에서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대상으로 손상 발생 원인 및 유형 등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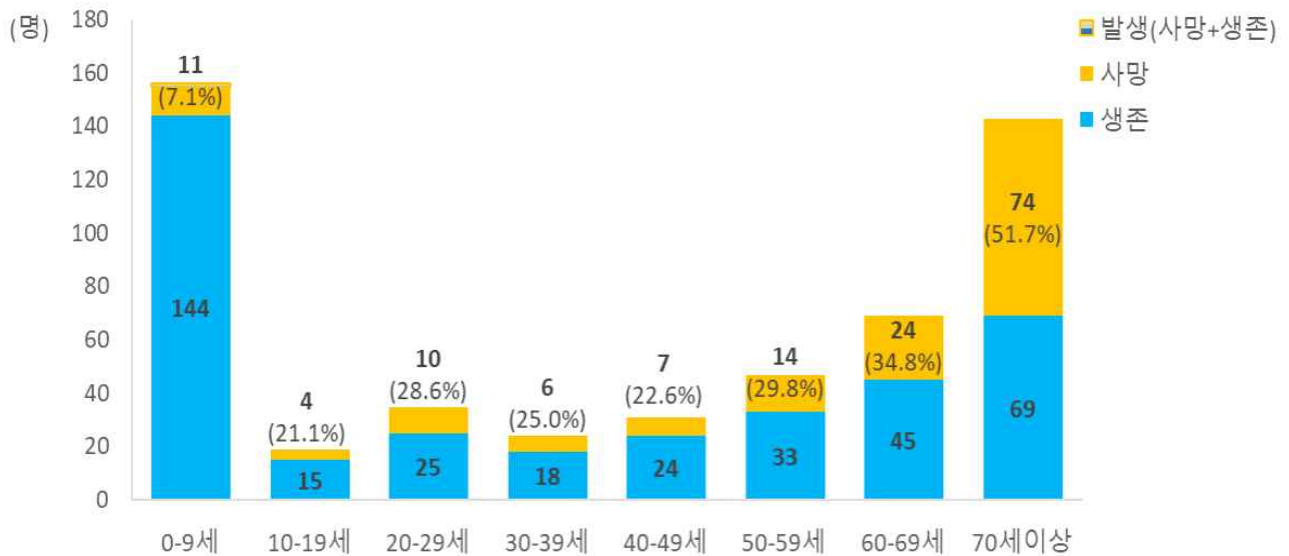
** 자해·자살 등 의도적 익수를 제외한 비의도적 익수사고 현황을 분석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29.6%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7.3%, 60-69세가 13.2%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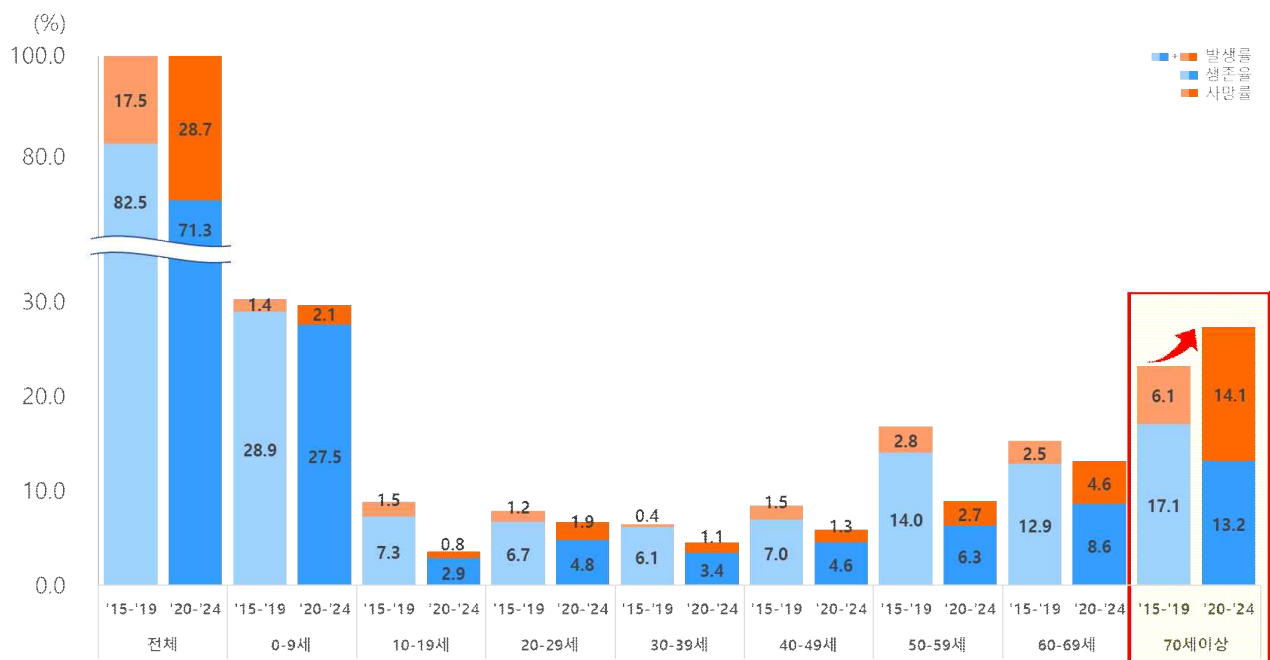
* 그 외 연령층(10~59세)의 경우 총 29.8% 차지

2. 70세 이상 발생 및 사망 증가, 발생 월 및 발생 시간대 확대

조사 기간동안 익수사고로 150명(28.7%)이 사망하였으며,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51.7%(74명)가 익수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의 익수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익수사고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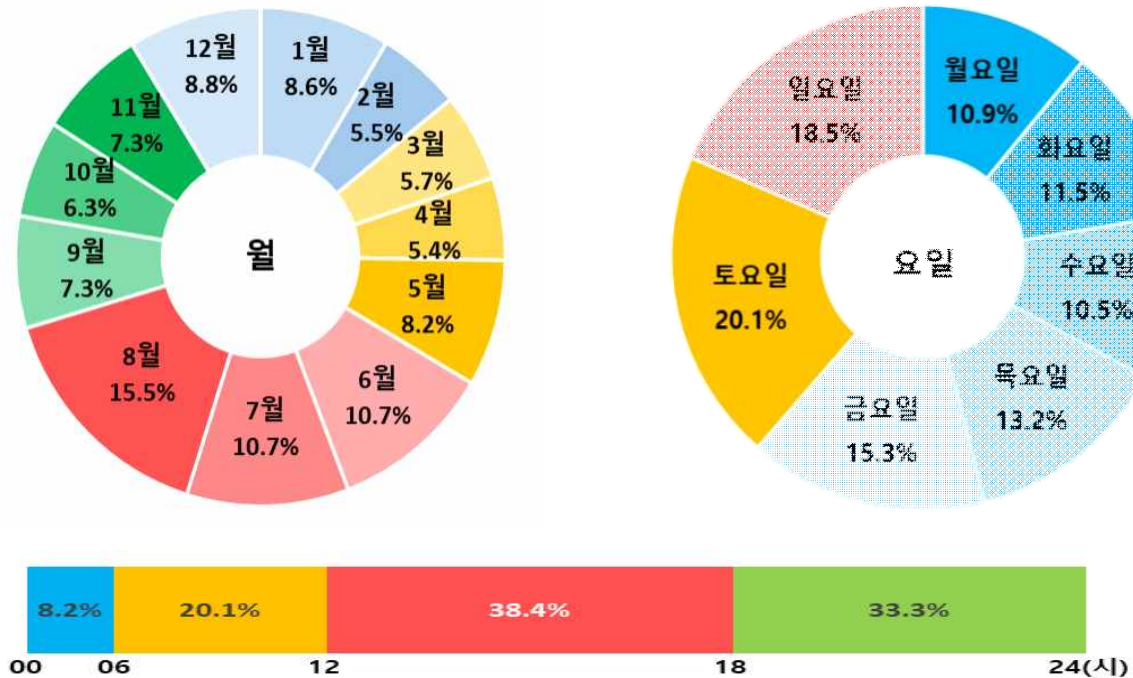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2020~2024) 익수사고 발생 및 사망 현황



[그림 2] 이전 분석(2015~2019)과 최근 익수사고 연령대별 증감 추이 비교

익수사고는 물놀이 관련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36.9%)에 주로 발생하였고, 주말(토요일 20.1%, 일요일 18.5%)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평일 중에는 금요일이 15.3%로 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12~18시로 38.4%로 확인되었으며, 18~24시가 33.3%로 뒤를 이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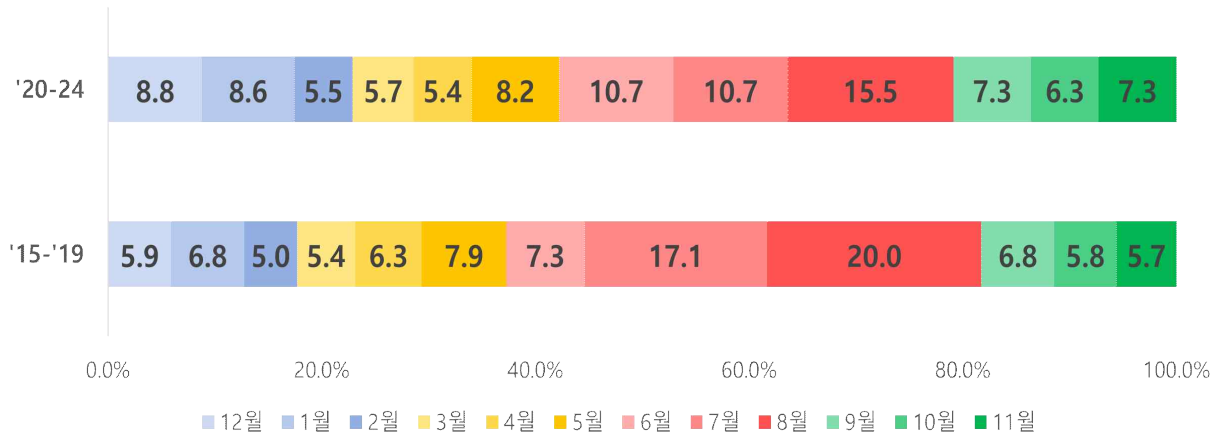


[그림 3] 시기별 익수사고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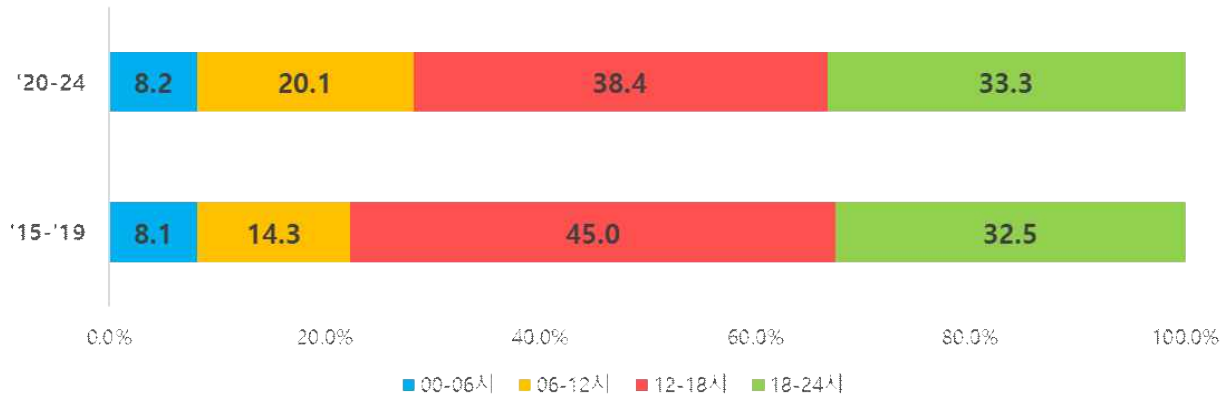
기후 변화에 따라 익수사고의 발생 패턴이 변화한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2015년~2019년)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37.1%)하던 익수사고가 최근 몇 년새(2020년~2024년) 26.2%로 10.9%p 감소한 반면, 6월과 9월은 기존 14.1%에서 18.0%로 증가하였다. 사고 시간대 역시 과거에는 오후 시간대(12-18시)에 발생(45.0%)하고 06~12시는 14.3%였으나, 최근에는 각각 38.4%, 20.1%로 오전시간에 발생하는 익수사고가 증가하였다(그림 4).

이는 더위가 길어짐에 따라 익수사고의 발생월 및 발생시간의 범위도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보다 주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6~9월), 이전보다 오전시간에도 세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월별 익수사고 발생현황>



< 시간대별 익수사고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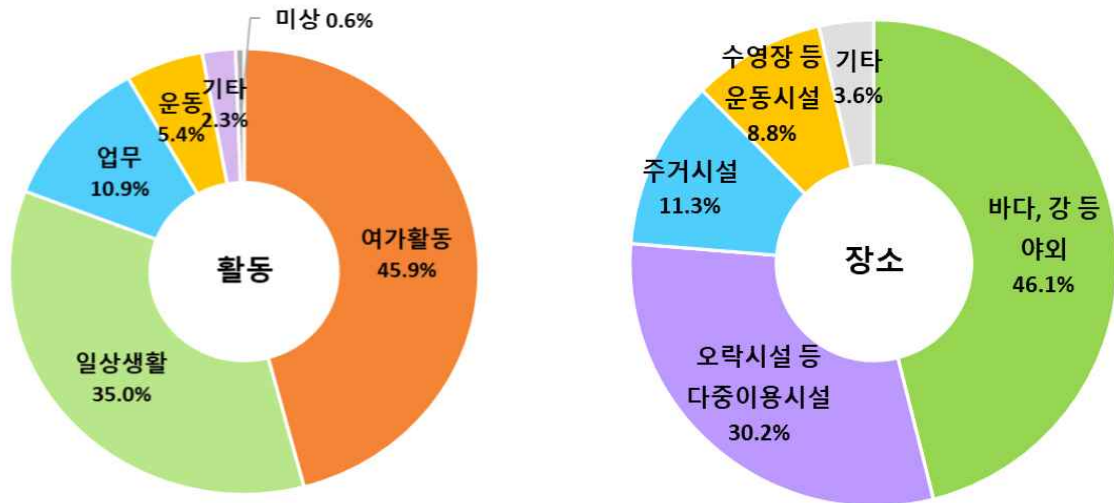
[그림 4] 이전 분석(2015~2019) 대비 월별 · 시간대별 익수사고 비교

	이전 분석 결과(2015~2019)	최신 분석 결과(2020~2024)
연령대	【발생률】 ■ 9세 이하 어린이 발생 분율 가장 높음(30.3%), ■ 70대 이상에서 23.2%로 두 번째 【사망률】 ■ 70대 이상 사망률(35.9%)	【발생률】 ■ 9세 이하 어린이 발생 분율 여전히 가장 높음(29.6%) ■ 70대 이상 발생률 증가(27.3%, 4.1%p ↑) 【사망률】 ■ 70대 이상 사망률 증가(51.7%, 15.8%p ↑)
월별	■ 7·8월 집중 발생(37.1%) * 6~9월 51.2%	■ 7·8월 발생률이 줄고(26.2%) 6~9월동안 비교적 고르게 분포(49.4%)
요일별	■ 주말에 발생빈도 높음(39.4%)	■ 주말에 발생빈도 여전히 높음(38.6%)
시간대별	■ 12~18시 집중 발생(45.0%) * 06~12시 14.3%, 18~24시 32.5%	■ 12~18시(38.4%), 06~12시(20.1%), 18~24시(33.3%)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

[그림 5] 이전 분석(2015~2019) 대비 최근 익수사고 경향 주요 변동사항

3. 대부분 여가활동 및 일상생활 중 발생

익수사고의 대부분은 여가활동(45.9%) 및 일상생활(35.0%)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수사고 발생장소는 주로 바다, 강 등 야외(46.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목욕탕·위터파크 등, 30.2%), 수영장 등 운동시설(8.8%)에서도 다수 발생하였다(그림 6).



[그림 6] 활동별·장소별 익수사고 발생 현황

4. 질병청, 물놀이 시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 체크리스트 배포

질병관리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놀이 시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 및 체크리스트를 리플릿과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한다.

The checklist is titled '물놀이 안전 체크리스트' (Water Safety Checklist). It is divided into three main sections: 시설관리자 (Facility Manager), 시설관리자 (Facility Manager), and 준비사항 (Preparation). Each section contains a list of items to be checked, with checkboxes provided for each item.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	준비사항
1 안전관리자 수, 위치와 역할	10 위생 상태 - 화장, 세면장, 음수대 및 정수기 등	1 물의 깊이와 온도, 물 흐름 빠르기 확인 (너울, 파도, 이안류 발생 시 중단)
2 풀별 수심/ 수위	11 사고 발생 시 상황 조치 지침 (조난신호 장비, 신호기 구비)	2 현지 기상상태 (적정 수온 등) 파악 및 주기적 기상 변화 확인
3 풀에 설치된 각종 난간, 계단 등의 고정상태	12 구급약품 준비 여부	3 공기튜브 등 물놀이 기구 작동 여부 확인
4 낮은 천정 및 계단 등에 충격보호대 설치 상태	13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적격업체 (수상레저사업) 여부 확인	4 안전장비 착용
5 안전시설 점검 일자와 기록	14 위험지역 및 구역 표시 등 안내 확인	5 구조요원과 의무실 및 구급약품 위치 확인
6 구명환, 구명로프 등 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및 수량, 장소	15 다이빙 위험구역 표지판	6 준비운동 시행
7 미끄럼 방지 시설 여부	16 날씨 및 안전경보 (소나기, 천둥, 번개, 심한 안개 중단)	7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시 행동지침 준수
8 물놀이 안전수칙 게시 여부	17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남해안의 경우 만조 간조 시간	8 미끄럼틀 등 기구 안전 수칙 준수
9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 신속 수송 의료시설 위치 파악 및 숙지 (현지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병원 등)	18 물놀이 안전수칙 숙지	9 물놀이 중 이상수칙 숙지
	19 물놀이 중 이상 발생시 대처요령 숙지	10 물놀이 중 이상 발생시 대처요령 숙지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에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리플릿]



[카드뉴스]

리플릿에는 물놀이 활동 전과 활동 중 주의해야 할 내용과 물놀이 중 다쳤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또한, 물놀이 체험활동 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물놀이 사고 10대 안전수칙을 카드뉴스를 통해 배포한다. 질병관리청이 매월 소개하고 있는 이달의 건강소식에 7월 주제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안전수칙 홍보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 이달의 건강소식 퀴즈 이벤트(이벤트 기간: 7.24~8.7, 당첨자 발표: 8.14)

동 리플릿과 안전수칙은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https://www.kdca.go.kr/injury>) > 자료실 > 수칙 및 지침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카드뉴스 및 교육자료

자료원으로 활용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으로 23개 참여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손상 발생 원인(손상기전, 손상유발물질 등) 및 손상 발생 특성(손상 발생장소·시간, 손상시 활동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주요 결과를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을 통해 원시자료와 함께 8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 자료 열람 및 내려받기 경로: 국가손상정보포털(<https://www.kdca.go.kr/injury>) > 자료실 > 통계집 >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 ① 휴가 전, 응급처치 요령 숙지하기
- ② 여행지는 물이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선택하기
- ③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파도와 조류가 강한 날은 피하기
- ④ 안전요원이 배치된 물놀이 장소 선택하기
- ⑤ 술이나 약물 복용 후 물놀이는 절대 삼가하기
- ⑥ 어린이는 수영이 가능한 보호자가 감독하기
- ⑦ 혼자 수영하는 것은 피하기
- ⑧ 수영하기 전 준비운동 하기
- ⑨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하기
- ⑩ 무리한 다이빙, 수심이 깊은 곳은 피하기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전체 손상환자의 0.1% 수준이나 그 중 28.7%가 사망할 정도로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발생 및 사망률이 높은 어린이와 노인 등을 중심으로 익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술이나 약물 복용 후 물놀이는 절대 삼가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매년 7월 25일은 UN 총회에서 정한 「세계 익사 예방의 날(World Drowning Prevention Day)」로, 올해는 ‘익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일어나선 안 된다(Anyone can drown, No one should).’란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중”으로, “질병관리청도 국제적인 손상 예방 흐름에 맞춰 손상 예방 관리를 통한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물놀이 사고 응급처치법, 체크리스트
 2.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3. 익수사고 발생 및 사망 통계
 4.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개요

담당 부서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은희 (043-219-2910)
		담당자	연구관	이정은 (043-719-7411)
			주무관	박상연 (043-219-2942)
			연구원	박소현 (043-219-2961)

물놀이 활동 손상 예방 및 응급처치 수칙

☑ 활동 전 주의사항

- **장소 안전 확인**
 - 물이 너무 깊거나 수심의 변화가 심한 곳은 피합니다.
 - 구조대원 혹은 안전관리요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사에 따릅니다.
 - 어린이는 물놀이 구역 모든 곳에서 **동행한 어른이 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활동전 준비사항**
 -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수영을 하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
 - 응급조치 및 대처요령을 미리 숙지합니다.

☑ 물놀이 활동 중 주의사항

- 어린이는 **어른이 보이는** 곳에서 수영하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놀이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빨리 주변에 알립니다.
-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물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 물놀이 시에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 휴식 없이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 신체 부위(머리 제외)

- 통증 부위를 가볍게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고, 점점 부어오르면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억지로 뼈를 맞추려 하지 말고, 골절 부위를 부목이나 나뭇가지 등 단단한 물건으로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골절 직후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 위가 낡을 때(근육경련)

- 탈수, 근육의 피로, 불충분한 운동 등에 의해 유발됩니다.
- 수영 중에 갑자기 발생한 근육경련의 경우, 가능하다면 물 밖으로 나와서 경직된 근육을 문지르거나 주물러서 풀어주도록 합니다.
- 물 밖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펴는 일입니다.
 - ① 먼저 몸을 중간에 모으고 물 위에 뜨도록 합니다.
 - ② 다음에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에 얼굴을 넣은 채 허벅지 안쪽의 엄지발가락을 힘껏 앞으로 꺾어서 잡아 당깁니다. 한동안 계속하여 격동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 ③ 통증이 사라지면 그곳을 잘 마사지 하면서 천천히 육지로 옮깁니다.
 - ④ 육지에 오른 다음에도 발을 뻗어 장딴지의 근육을 충분히 마사지해 줍니다.
 - ⑤ 더운물이 있으면 수건에 적셔서 장딴지에 감고 온찜질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저체온증(춥고 물이 떨릴 경우)

- 가벼운 저체온증에서는 일반적으로 떨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피부에 달살이 돋으며, 피부혈관이 수축하여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합니다.
- 젖은 옷을 벗고 물에 있는 물기를 닦은 다음, 깨끗한 수건, 옷가지 등으로 몸을 감싸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해파리에 쏘았을 때(해수욕장, 바닷가)

- 드물게 심한 전신반응으로 할증이 저하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으므로 즉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 해파리에 쏘인 부위는 만지지 말고 바닷물을 이용해 10분 이상 씻어 줍니다.
- 세척 후 해파리 촉수가 피부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하여 제거 해야 합니다.
-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에도 해파리에 쏘인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고 오심, 구토, 식은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맹독성 해파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
kdca.go.kr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
kdca.go.kr/injury

물놀이 활동 손상예방 및 응급처치 수칙

질병관리청
KDCA

물놀이 안전 체크리스트

☑ 시설 관리자

1	안전관리자 수, 위치와 역할	☐
2	풀별 수심/수위	☐
3	풀에 설치된 각종 난간, 계단 등의 고정상태	☐
4	낮은 천정 및 계단 등에 충격보호대 설치 상태	☐
5	안전시설 점검 일자와 기록	☐
6	구명환, 구명로프 등 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및 수량, 장소	☐
7	미끄럼 방지 시설 여부	☐
8	물놀이 안전수칙 게시 여부	☐
9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 신속 수송 의료시설 위치 파악 및 숙지 (현지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병원 등)	☐

☑ 시설 관리자

10	위생 상태 - 화장, 세면장, 음수대 및 정수기 등	☐
11	사고 발생시 상황 조치 지침 (조난신호 장비, 신호기 구비)	☐
12	구급약품 준비 여부	☐
13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적격업체 (수상레저사업) 여부 확인	☐
14	위험지역 및 구역 표시 등 안내 확인	☐
15	다이빙 위험구역 표시판	☐
16	날씨 및 안전경보 (소나기, 천둥, 번개, 심한 안개 중단)	☐
17	조식간만의 차가 큰 서·남해안의 경우 만조 간조 시간	☐
18	물놀이 안전수칙 숙지	☐
19	물놀이 중 이상 발생시 대처요령 숙지	☐

☑ 준비 사항

1	물의 깊이와 온도, 물 흐름 빠르기 확인 (너울, 파도, 이안류 발생 시 중단)	☐
2	현지 기상상태 (적정 수온 등) 파악 및 주기적 기상 변화 확인	☐
3	공기투브 등 물놀이 기구 작동 여부 확인	☐
4	안전장비 착용	☐
5	구조요원과 의무실 및 구급약품 위치 확인	☐
6	준비운동 시행	☐
7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시 행동지침 준수	☐
8	미끄럼틀 등 기구 안전 수칙 준수	☐
9	물놀이 안전수칙 숙지	☐
10	물놀이 중 이상 발생시 대처요령 숙지	☐

어린이 체력활동 손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2025.7.24.  질병관리청

핑퐁 이달의 건강소식 물놀이 안전수칙

물놀이 사고 10대 안전수칙

- 안전요원이 배치된 물놀이 장소 선택하기**
- 술이나 약물 복용 후 물놀이는 절대 삼가기**
- 어린이는 수영이 가능한 보호자가 감독하기**

 질병관리청

+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친구 추가 5/7

2025.7.24.  질병관리청

핑퐁 이달의 건강소식 물놀이 안전수칙

물놀이 사고 10대 안전수칙

- 혼자 수영하는 것은 피하기**
- 수영하기 전 준비운동 하기**
-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하기**
- 무리한 다이빙, 수심이 깊은 곳은 피하기**

 질병관리청

+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친구 추가 6/7

2025.7.24.  질병관리청

핑퐁 이달의 건강소식

“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www.kdca.go.kr>)에서, 매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이달의 건강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

 질병관리청

2025.7.24.  질병관리청

핑퐁 이달의 건강소식 물놀이 안전수칙

이달의 건강소식 퀴즈 이벤트!

물놀이 사고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감독하기
- 약물 복용 후에는 물놀이 피하기
- 수심이 깊은 곳에서 다이빙하기
- 구명조끼는 수상레저 시 필수로 착용하기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고, 구글폼을 작성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정답을 맞춘 50명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7.24.(목)~8.7.(목)
당첨자 발표 8.14.(목) *당첨자 대상 개별연락

+ ※ 본 이벤트는 게시물 댓글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 성별, 연령대별 익수사고 발생 및 사망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523 (100.0)	155 (29.6)	19 (3.6)	35 (6.7)	24 (4.6)	31 (5.9)	47 (9.0)	69 (13.2)	143 (27.3)
남자	385 (73.6)	101 (65.2)	15 (79.0)	30 (85.7)	16 (66.7)	24 (77.4)	34 (72.3)	54 (78.3)	111 (77.6)
여자	138 (26.4)	54 (34.8)	4 (21.1)	5 (14.3)	8 (33.3)	7 (22.6)	13 (27.7)	15 (21.7)	32 (22.4)
사망	150 (28.7)	11 (7.1)	4 (21.1)	10 (28.6)	6 (25.0)	7 (22.6)	14 (29.8)	24 (34.8)	74 (51.7)

* 자료원: 2020~2024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사망분율: 각 연령대별 익수사고 발생 환자 중 사망한 환자의 분율

□ 2020-2024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익수사고 조사 결과

○ 계절별

(단위: 명, %)

구분	계	겨울				봄				여름				가을				미상
		소계	12월	1월	2월	소계	3월	4월	5월	소계	6월	7월	8월	소계	9월	10월	11월	
발생	523	120	46	45	29	101	30	28	43	193	56	56	81	109	38	33	38	0
(분율)	(100.0)	(22.9)	(8.8)	(8.6)	(5.5)	(19.3)	(5.7)	(5.4)	(8.2)	(36.9)	(10.7)	(10.7)	(15.5)	(20.8)	(7.3)	(6.3)	(7.3)	(0.0)

○ 요일별

(단위: 명, %)

구분	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미상
발생	523	57	60	55	69	80	105	97	0
(분율)	(100.0)	(10.9)	(11.5)	(10.5)	(13.2)	(15.3)	(20.1)	(18.5)	(0.0)

○ 시간대별

(단위: 명, %)

구분	계	00-06시	06-12시	12-18시	18-24시	미상
발생	523	43	105	201	174	0
(분율)	(100.0)	(8.2)	(20.1)	(38.4)	(33.3)	(0.0)

○ 활동별

(단위: 명, %)

구분	계	여가활동	일상생활	업무	운동	기타	미상
발생	523	240	183	57	28	12	3
(분율)	(100.0)	(45.9)	(35.0)	(10.9)	(5.4)	(2.3)	(0.6)

○ 장소별

(단위: 명, %)

구분	계	바다, 강 등 야외	오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주거시설	수영장 등 운동시설	기타	미상
발생 (분율)	523 (100.0)	241 (46.1)	158 (30.2)	59 (11.3)	46 (8.8)	19 (3.6)	0 (0.0)

※ [참고] 연도별 손상기전에 따른 손상 발생률 및 사망률(2020-2024)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내원	사망	내원	사망	내원	사망	내원	사망	내원	사망
전체 손상	206,887 (100.0)	2,534 (1.2)	190,496 (100.0)	2,561 (1.3)	193,384 (100.0)	2,613 (1.4)	203,285 (100.0)	2,425 (1.2)	86,633 (100.0)	2,229 (2.6)
운수사고	31,628 (15.3)	803 (2.5)	26,531 (13.9)	743 (2.8)	26,173 (13.5)	737 (2.8)	26,689 (13.1)	728 (2.7)	13,087 (15.1)	694 (5.3)
추락·낙상	68,904 (33.3)	975 (1.4)	66,009 (34.7)	1,077 (1.6)	71,185 (36.8)	1,188 (1.7)	76,875 (39.8)	1,074 (1.4)	34,614 (40.0)	960 (2.8)
둔상	39,801 (19.2)	84 (0.2)	36,161 (19.0)	102 (0.3)	37,637 (19.5)	118 (0.3)	39,356 (20.4)	76 (0.2)	13,165 (15.2)	79 (0.6)
관통상	24,923 (12.0)	50 (0.2)	22,903 (12.0)	46 (0.2)	21,269 (11.0)	58 (0.3)	21,622 (11.2)	40 (0.2)	7,703 (8.9)	45 (0.6)
기계	2,179 (1.1)	12 (0.6)	1,952 (1.0)	9 (0.5)	1,749 (0.9)	12 (0.7)	1,648 (0.9)	15 (0.9)	537 (0.6)	6 (1.1)
화상	3,597 (1.7)	14 (0.4)	2,841 (1.5)	11 (0.4)	2,856 (1.5)	12 (0.4)	2,997 (1.5)	13 (0.4)	1,315 (1.5)	10 (0.8)
익수	215 (0.1)	50 (23.3)	216 (0.1)	57 (26.4)	199 (0.1)	51 (25.6)	186 (0.1)	42 (22.6)	158 (0.2)	55 (34.8)
질식	856 (0.4)	309 (36.1)	833 (0.4)	282 (33.9)	682 (0.4)	234 (34.3)	716 (0.4)	249 (34.8)	499 (0.6)	194 (38.9)
중독	8,293 (4.0)	181 (2.2)	8,117 (4.3)	166 (2.0)	7,944 (4.1)	149 (1.9)	8,518 (4.4)	141 (1.7)	5,974 (6.9)	141 (2.4)
신체 과다사용	8,294 (4.0)	4 (0.0)	7,384 (3.9)	10 (0.1)	7,795 (4.0)	7 (0.1)	8,630 (4.5)	8 (0.1)	3,220 (3.7)	5 (0.2)
기타·미상	18,197 (8.8)	52 (0.3)	17,549 (9.2)	58 (0.3)	15,895 (8.2)	47 (0.3)	16,048 (8.3)	39 (0.2)	6,361 (7.3)	40 (0.6)

* 자료원: 2020-2024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내원분율: 해당 손상기전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분율

* 사망분율: 각 손상기전별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중 사망한 환자의 분율

* 의도성 및 비의도성 익수사고 포함한 내원자 수

□ 추진목적

- 응급실 기반의 손상자료를 이용한 손상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평가

□ 운영방법 및 참여기관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도입, 5개 참여병원* 대상으로 조사 실시('06년)

* '08년 8개 병원, '10년 20개 병원, '15년 23개 병원으로 확대

- 다양한 손상 발생 현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다기관이 참여하여 연중 상시로 손상내원환자 전수를 조사하는 체계로 운영

- 심층분석이 필요한 시급한 손상 과제를 고려하여 4개 심층분과*로 나누고 23개 참여병원이 분담하여 심층조사 실시

* ①운수사고, ②자살·중독·추락·낙상, ③머리·척추 손상, ④ 소아·청소년 손상

- 2025년 참여병원(분과별)

- (운수사고) 경북대학교병원, 가천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자살·중독·추락·낙상) 강동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 (머리·척추 손상)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제주대학교병원
- (소아·청소년 손상)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 조사내용 및 방법

- (조사내용) 공통문항 60개, 심층문항 58개

- (공통문항) 의도성, 손상원인, 손상유발물질, 손상부위, 최종결과 등
- (심층문항) 손상발생 시 상세사항, 중증도, 안전장치 활용 등

- (조사방법) 의무기록자료 이용 및 면접